

## 양계산업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제언

- 양계 산업과 농업의 발전..... 허신행
- 양계 산업과 그 산업화 정책... 김인식
- 국민보건 향상과 물가안정에  
이바지하는 양계 산업..... 신흥중
- 양계 산업의 안정적 발전은 공동  
운명체의 주인의식으로부터·이경원
- 스스로 연구하는 양계인..... 하낙순

# 양계 산업과 농업의 발전

## 매우 중요한 산업임에도 쉽게

## 생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무시되고 있다

허 신 행

농촌경제연구원  
농정연구실장



요새 값싸고 흔한 닭고기와 달걀을 접할 때마다 나에게서 서로 다른 몇가지의 생각들이 교차되곤 한다. 어렸을 때에는 모처럼의 생일이나 큰 명절에 한 차례씩 맛볼 수 있던 닭고기가 요즘에는 너무 흔해졌다는 생각이 든다. 그 뿐만 아니라 대학교 방학이 끝나고 서울로 올라올 때 12시간 이상의 지루한 기차를 타야만 했었는데 지극하게 아껴 주시던 할머니께서 달걀 몇십개를 물에 삶아 가방에 넣어주시던 그 귀한 달걀이 요새는 너무 흔해 별로 거들떠 보지 않게 되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택시 한 차례 안타는 대신 그 돈으로 달걀을 사면 한 보따리를 안게되니 달걀은 이미 천한 상품이 된 것일까. 사랑하는 사위가 처가에 오면 씨암탉을 잡는다는 말이 아직도 우리 컵전에 생생하게 남아 있는데도 어느 세월에도 닭고기와 달걀이 고급식품에서 밀려나 제2선으로 처진 느낌이 든다. 이 때 스쳐가는 의문은 우리가 정말로 잘살게 된 나머지 닭고기와 달걀이 사위의 식탁에서 밀려난 것일까 아니면 빼놓아진 식생활의 결과로 나타

난 하나의 현상일까 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착잡한 생각은 돈을 벌겠다고 양계업을 시작하여 3년을 넘기지 못한 채 빚더미 위에서 헤어날 수 없는 나머지 파산하고 마는 농민들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978년 이후 닭고기와 달걀의 실질가격이 그 변동추세에 있어서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양계산업의 어려움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양계업은 이대로 발전해도 좋은 것인가. 양계업이 정책의 관심 밖에 이처럼 내던져져 있어도 농업은 잘 발전해 나갈 것인가. 농업정책을 연구하는 사람의 하나로서 매월 갖는 경제동향보고 때면 가슴아프게 생각되는 것들이다. 그러면서 양계업의 중요성이나 농업발전 전에 대한 기여도를 생각해 보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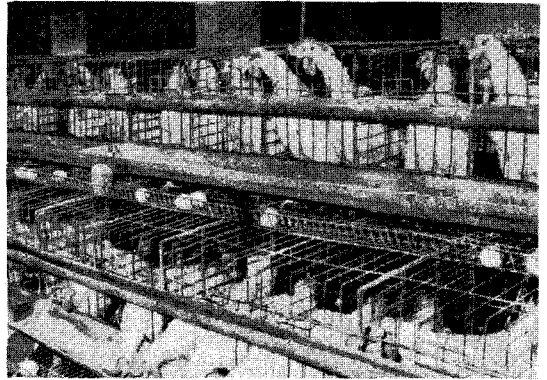
들닭(野鷄)이 약 4천년 전에 가축화되기 시작, 농경(農耕)생활의 정착을 돕는데 기여해 온 것을 과소 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뜰이나 들에 떨어져 사람이 식량으로 이용할 수 없는 곡물의 낱알을 주워먹고 큰 그 닭으로부터 사람은 고기와 달걀을 획득,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하게 된다. 또 닭은 돼지나 소같은 큰 가축과는 달리 짧은 기간 안에 좁은 면적 위에서 많은 수의 사양이 가능한 동물일 뿐만 아니라 단위가 가족용 소비에 알맞아 매우 경제적인 가축에 속한다. 그리고 닭은 각종 질병에 강하고 번식력도 강해서 농민들이 양계를 선호(選好)하는 편이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양계산업이 쉽게 전문생산화 될 수 있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양계산업이 다른 양축분야에 앞서 전문 생산체제로 돌입했던 것이다.

양계는 또 단기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각종 실험이 용이한 업종으로서 품종개량과 부화(孵化), 사양관리, 질병치료 등 각 분야에 걸쳐 획기적인 기술이 개발되었다. 이처럼 다른 가축분야에 비하여 유리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양계이기 때문에 양계산업은 농업발전의 견인차(牽引車)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달걀소비가 국민 한 사람당 1960년에 33개였었는데 1981년에는 114개로 급증한 사실만 보아도 양계산업이 얼마나 팽창해 왔던가를 알 수 있게 한다. 사육의 규모면에서 보아도 1981년 2천마리 이상을 기르는 농가의 수효가 전체 양계농가의 0.5%에 해당되지만, 이들이 기르고 있는 닭의 총 마리수는 전국적으로 73%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급진적인 전문생산화의 과정에 놓여 있는 것이 한국의 양계산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농업이 자급자족적인 영농의 패턴으로 오랜 역사기간 유지되어 오다가 1968년을 전환점으로 하여 이제 겨우 상업성을 띠는 전문영농의 패턴으로 바뀌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한국의 양계산업은 이보다 훨씬 앞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옛말에 「모나는 돌이 정맞는다」고 했듯이 앞서 발전해 나가는 양계산업에 어찌 순탄한 향해만이 있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양계인(養鷄人)들은 분명히 한국 농업개발의 선구자적 개척자임에 틀림이 없다. 그들은 생산과 가격 모든 면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오직 기술에 의존하면서 양계업을 지속해 나옴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부의 과감한 보호나 지원이 있어 온 것도 아니다.

정부의 일각에서는 양계산업에 대한 지원이나 육성대신 비교우위(比較優位)라는 회초리를 들고 두들기면서 생산자들을 불안한 상태로 몰아 넣고 있다. 도입 육수수에 관세와 안정기금 명목의 비용을 첨가시켜 놓고서도 이같이 비싼 원료곡물을 주사료로 하여 생산된 계산물(鷄產物)이 국제가격과 비교하여 비싸다고 생산자를 몰아 세운다. 그



러나 이것은 왜곡된 주장으로서 사실과 다르다. 한국의 양계산업은 농업의 발전단계에서 볼 때 효율적이며, 앞으로 더욱 향상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다만 한가지 문제는 배합사료의 원료곡물을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어서 외화지출이 많다는 사실이나 국토면적이 좁은 나라에서 이것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한국 사람의 육류소비패턴이 쇠고기를 가장 선호(選好)하고, 다음이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순서로 인식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국민의 기호(嗜好)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과거를 돌이켜 보면, 닭은 귀한 손님이 올 때나 큰 명절에 값진 육류로 이용되는 한편, 한 여름의 복(伏) 때 약용으로 쓰이는 두가지 전혀 다른 소비 측면을 안고 있었다. 더우기 열이나는 병이나 피부병으로 인하여 한약을 복용할 때 의사들이 닭고기 취식을 금지시켜 온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닭고기의 소비를 의식적으로 기피한 면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닭고기가 쇠고기나 돼지고기보다 섬유질에 있어서 가늘고 연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분에도 있어서도 단백질 21.0%, 지질 5.0%, 회분 1.2%, 칼슘 4mg, 인 280mg, 비타민 A 40IU, B<sub>1</sub> 0.1mg, B<sub>2</sub> 0.1mg, 나이아신 10.0mg이 들어 있어 영양이 풍부하다. 또 닭고기는 쇠고기처럼 지방이 근육속에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맛이 담백하고 소화흡수가 잘되는 고기라고 식품공학 교수는 주장한다(高大 劉太鍾 교수). 현대인

---

도입 옥수수에 관세와 안정기금 명목의 비용을 첨가시켜 비싼 원료곡물을 먹여 생산 국제가격과 비교해 비싸다고 몰아세운다. 양계는 농업분야에서 앞서 발전 국민경제에 기여한 바가 커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

의 과학적인 지식에 기초해서인지는 몰라도 오늘날 미국, 캐나다, 유럽제국 등 많은 선진국에서 닭고기의 요리개발과 함께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최근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업소가 거리마다 생겨 닭고기의 소비가 놀랍게 늘어나고 있다.

닭고기의 소비증가에 앞서 늘어나고 있는 것이 달걀의 소비이다. 달걀은 이용목적에 따라 고급의 정도가 달라진다. 그대로를 물에 넣고 삶아 껍질을 벗긴 것이라면 아마도 그것은 별로 고급스럽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각종 제과점에서 만드는 고급빵이며 과자 등에 들어가는 달걀은 일종의 사치품에 포함되는 것도 있다. 아직은 우리 생활속에 습관화되지 않았지만 서양사람들 처럼 매일 아침 한 두개의 계란 후라이를 즐겨 먹게되는 날이면 계란소비는 다른 차원으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처럼 생산과 소비면에서 높은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양계산업을 새로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때로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것을 망각하는 사례가 많음을 자주 보기 때문이다. 공기나 물처럼 중요한 것도 없지만 그것들이 풍부하다는 이유로 해서 사람들은 그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거나 아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마찬가지로 생산의 유리성과 영장이 높은 가치를 감안할 때 닭이라는 것이 우리 생활에 매우 중요하지만 쉽게 생산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해서 양계산업이 무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마치 공기와 물이 오염되는 것을 걱정한 나머지 이들을 깨끗하게 보존하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는 선진국에서와 같이 우리도 매일 마시고 있는 공기와 물 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직접

혹은 간접으로 매일 먹고 있는 달걀이며 닭고기를 깨끗하고 맛있게 보존 내지 생산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계산업을 적극 보호 육성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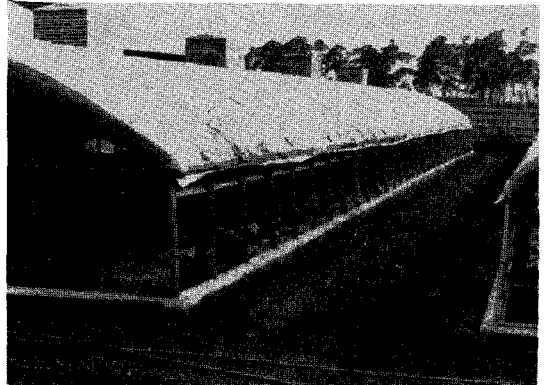
양계산업을 안정, 보호, 육성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계산물(鷄產物)의 수급 및 가격을 안정시켜야 할 것이다. 수급의 안정은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절장치가 마련되어야 가능해질 것이다. 수급조절장치가 누구를 위해서 마련되든, 보다 중요한 것은 시급하게 요망된다는 사실에 있다. 생산자 협동조합이건 유통위원회(Marketing Board)이건 또는 정부이건간에 우리의 현실에 알맞는 수급조절기구가 세워져서 적극적인 자세로 생산과 공급을 조절하고 또 때로는 소비를 촉진시켜 수급의 균형을 항상 유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계산물의 시장가격이 생산비와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선에서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이 때 비로소 생산자가 몸담았던 양계산업을 떠나지 않고 농업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두번째로 서둘러야 할 것은 계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도계시설(屠鷄施設)의 확충으로부터 시작하여 등급, 포장, 가공, 수송, 저장, 판매 등에 이르기까지 근대화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유통의 근대화는 정부나 소비자에 앞서 생산자단체가 앞장서서 개선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한다. 한 산업의 발전은 그 산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부단한 노력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생산자가 많을 때 개별적인 노력의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분산된 힘을 한 곳에 집중시켜 연구하고 시험하여 유통문제를 하나 하나 순리대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세번째로 양계산업을 육성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기술의 혁신이 곳곳에서 꾸준히 일어나야 한다. 기술은 한 생명체의 두뇌요, 기관에 속하는 것이다. 생산과 유통 모든 분야에서 기술의 혁신이 일어나는 경우 비용의 절감이 가능해지고 생산물의

질이 향상되며, 그 결과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한 산업은 침체되지 않고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은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해서도 개발되어야 하겠지만 학계 및 생산자단체나 사료회사 또는 생산자 자신들에 의해서 개발되어야 한다. 이것은 필요성이나 말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발자금의 투입이 있어야 가능해지는 것이므로 조사 연구활동비를 내는데 있어서 인색해서는 안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부 정책담당자나 학계의 일부에서도 농업을 비교우위의 차원에서만 보지말고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원과 고용기회의 확대, 그리고 국민경제의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보호 육성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양계업은 농업분야에서도 앞서 발전해 나가는 전방산업으로 농업발전에 기여해온 바 크므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될 줄로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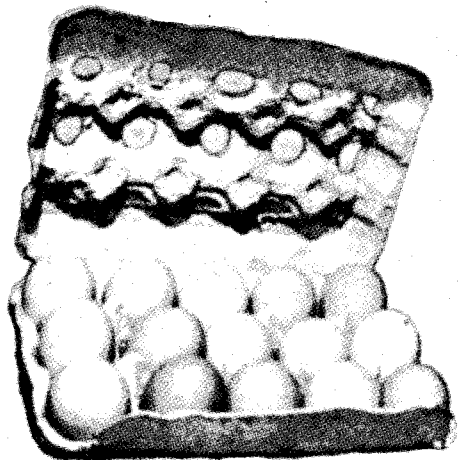
이러한 과제들이 양계산업에서 해결된다면 경제발전과 더불어 그 전망은 매우 밝다고 생각되므로 지난 20년간 겪어온 온갖 시련과 경험을 밑거름 삼아 앞으로 계속 발전해 주기를 바란다.

## 위생적인 종이난좌를 사용합시다

- 10개들이 난좌
- 20개들이 난좌 } 가정용
- 30개들이 왕란, 종란용 난좌
- 30개들이 보통난좌

### 규격 종이난좌는

1. 신선도 유지
2. 부화율 향상
3. 질병 예방
4. 파란 방지



80년대는 과학적인 경영시대

## 한국성형제지공업사

경기도 성남시 고등동 98-1 (전화) 고등우체국 77번